

NEWS 국제 석학들 여수에 모여 ‘섬의 미래’ 모색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수능, 21일부터 원서 접수 ‘온라인 원서’ 전국 확대

오는 21일부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myg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김인수 기자 jinus@gwangnam.co.kr

▶1면 ‘DJ 서거 16주기’서 계속

전남도는 고향 신안 하의도의 대통령 생가 일대를 중심으로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북 평화와 인도초 정신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마련된다. 정치권도 DJ 정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DJ 서거 16주기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전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대거 자리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석, 김원기·임재정·문화체육·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노재현·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도 추도식에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도초(忍冬草)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巨木)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김대중이 키워낸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9월 4~5일 ‘2025 국제 섬 포럼’ 개최...10개국 참여 내년 박람회 연계...섬 문화·관광 등 발전 방안 논의

국제 석학들이 여수에 모여 관광과 문화 등 섬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18일(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섬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2025 국제 섬 포럼 in Yeosu’를 개최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D-365 기념행사와 연계한 이번 포럼은 ‘섬 문화 다양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그리스, 대만,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의 섬 전문가들이 참여해 섬 관련 연구기관, 섬 주민 등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윤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모습. 윤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李 대통령, 양곡법·농안법·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 ‘사장 추천 절차’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국가·지자체 지원법도 통과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특정 농수산물에 연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이행 및 수매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

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 안정제도가 담겼다. 정부는 매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생산자단체의 계약거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



이재명 대통령, 윤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성된다. 비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제하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와 ‘섬 주민들이 겪는 문화 변화와 과제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준비됐다. 이틀날은 ‘섬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미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한 섬 지역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션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섬 관광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섬박람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섬 포럼을 통해

섬이 단지 지리적 공간을 넘어 독특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소중한 자산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며 “이번 포럼을 국제적 위상을 갖춘 행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D-365 기념행사는 9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이현규 기자 gn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11월 28일부터 LPG차 ‘셀프충전’ 허용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9건 발굴해 개선

오는 11월 28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도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반려동물용 삼푸 제조시 기준이 완화돼서 약사나 한의사 등 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데 올해는 총 9건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LPG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운영이 확대돼 운전자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반려동물용 삼푸·린스 등 일부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로

연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의사인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했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도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히 정비해 공개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자가 독자 개발한 원료의 권리 확보 방안도 연내 시행된다. 현재는 독자 개발한 원료에 대한 개별 규정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공공기관 등만 가능했는데,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유통전문판매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공동상품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총포화약법상 허가 신청 때 신체검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새 안보위협 대비 2025 을지연습 돌입 최초 상황보고회...드론·사이버공격 등 대응 실전 훈련

전남도는 18일 오전 도청 충무시절에서 군 지휘관, 도 실·국장, 중앙 관할평가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를 열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연습을 시작했다. 회의에선 본격적인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훈련 진행 상황에 따른 준비와 안전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으로 올해로 57번째다. 올해는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128개 기관 1만560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하는 등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통합방위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정력 30년 노하우!!

이든 하우스 컨테이너

본 사/1공장 : 목포시 공단중앙로 30 (농공단지 내)

전시장/2공장 : 목포시 용매동 603번지

061) 277-0004

061) 261-7400

조달청 3자단가등록업체/농공단지직접생산업체

- 농막이이동식주택
- 스탈하우스
- 초소·휴먼부스
- 이동식화장실
- 컨테이너 제작·판매·렌탈·중고매입
- 조경시설물(파고라,운동기구,벤치)
- 휴먼지털이기(원드건 제작,설치,판매)

본 사/1공장 : 목포시 공단중앙로 30 (농공단지 내)

전시장/2공장 : 목포시 용매동 603번지

061) 277-0004

061) 261-7400